

## 제30차 정기이사회 주요 의사록

###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11:00 ~ 13:00
- 장 소 : 티원 (서울역 4층)
- 출석현황 : 총 재적이사 7명 중 5명 참석
- 참 석 자 : 이사장 김상헌, 이사 이성열, 고희경, 정재승, 이영열,  
감사 김성규,
- 특기사항 : 간사 사무국장 직무대리 정광호

### 2. 보고사항

- 제29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 처리결과
- 국립극단 2017년 주요 사업실적(2016.11.27기준)

### 3. 심의안건

- 제1호 의안 : (재) 국립극단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2호 의안 : (재) 국립극단 임직원보수규정 개정(안)

### 4. 의결결과

- 제1호 의안 : (재)국립극단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원안가결
- 제2호 의안 : (재) 국립극단 임직원보수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5. 기타사항

- 제30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부. 끝.

# 주요회의록

2017년 12월 5일

○ 의 장 :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 <성원보고>

이 사 장 :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이사님들, 감사  
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단법인 국립극단의 제3대 예술감  
독으로 임명되신 이성열 예술감독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감독 : 국립극단 제3대 예술감독 이성열입니다. 극단의 지난 7년 업적을 적  
극적으로 계승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개혁하여 국립극단의 성장  
을 이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 보고과정에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 사 장 : 이어서 국립극단 제30차 정기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7명중 5명 참석하셨고, 감사님께서  
도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 장 : 이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립극단 제30차 정기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는 보고안전 2건, 심의안전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고사항 보고, 안전 심의 순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이 사 장 : 첫 번째 보고안은 지난 30차 임시이사회 의사록과 의결처리결과입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3쪽 '제29차 임시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 처리결과' 설명함

이 사 장 : 보고사항 1호에 대해서 질문 또는 의의 있으십니까?

전체이사 : 없습니다.

이 사 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보고사항은 이대로 접수하도록 하고, 다음 보고사항은 국립극단 2017년 주요사업 실적보고입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회의자료 4~7쪽 '2017년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보고함

이 사 장 : 보고사항 2호에 대해서 질문 또는 의의 있으십니까?

정 재 승 : 지방공연은 어떻게 지역이 선정 되는 것인가요?

간 사 :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시행하는 '방방곡곡'사업에. 저희가 가능한 일정과 작품을 신청하면 문화소외지역과 매칭 시켜, 지원금 보조와 극단 자부담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 재 승 : 지방공연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공연은 유료점유율이 10~20%대에 머물고 공연관심도가 적은 거 같은데 왜 선정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고, 부산, 대구 등 중소도시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유료점유율 성과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소외지역인 고흥, 상주지역의 공연 추진이 고무적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간 사 : 지방공연 중 유료객석점유율이 높은 천안, 대전공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극장측 요청으로 진행한 경우입니다. 기획력, 마케팅 인력 등이 수반된 중소도시의 극장들은 유료객석점유율이 높은 편이고, '방방곡곡' 사업 참여에 진행되는 소규모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낫습니다.

정 재 승 : 찾아가는 지방공연 등 애써서 지방공연 투어를 하는데 성과가 좋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이 사 장 :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두 번째 보고사항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안건 사항>

이 사 장 : 제 1호 심의안건은 국립극단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안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제안사유에 대하여 회의자료 9~22쪽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자료 설명함.

이 사 장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 감사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 사 : 국고보조금은 70백만원 증액되고, 자체수입은 420백만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총예산 35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에서 이월금이 감소되었는데 현재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10억을 차기이월금으로 결산 추정하여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간 사 : 네, 맞습니다.

고 회 경 : 자체 보유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감 사 : 문체부에서는 이월금을 당해연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최대한 집행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많은 이월금 보유를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 사 :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6년 자체 이월금 1,327백만원중 조명무빙라이트 300백만원 구매, 명동예술극장 1층 관객 편의공간 및 아트숍 조성 공사비로 30백만원, 총 330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월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감 사 : 또한 예산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 회계적인 부분일 수 있겠으나 구조적으로 겪는 재단법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극단 18년 예산(안)도 사업비 비중(450백 감)은 줄고 운영비(100백 증) 비중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국립극단의 특이점은 단원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단원 인건비는 출연 사례비로 사업비 성격인데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 운영비가 더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은 회계수치가 아닌 예산을 보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예산에 단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별도의 주석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회계적으로는 이 부분을 사업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단원이 극단 정원에 포함되어 기재부의 인건비 예산 통제를 받으므로 예산전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상운영비의 구조가 계속 커지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서 국립극단의 해당논리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간 사 : 경상비 산출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적용 등 용역비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절감부분을 찾아 금년과 총액 동결시켰습니다. 또한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단원 인건비는 '17년 580백만원, '18년은 3% 증액한 6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 회 경 : 수입은 국고가 70백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수입이 420백만원 감액, 지출구조는 운영비가 100백만원 증액, 사업비는 450백만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단에 비교하면 운영비 비중이 적고,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감사님 의견처럼 단원인건비를 운영비안에 별도 표기함으로써 이해를 높였으면 합니다.

간 사 : 극단 규정상 직원 정원은 66명이고 이중 30명이 단원입니다. 총 정원 인건비를 국고보조 받고 있기 때문에, 단원 인건비가 운영비(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추후 별도 표기하겠습니다.

고 회 경 : 그럼 시즌단원도 기재부가 통제하는 인력인거죠?

간 사 : 네, 그렇습니다.

고 회 경 : 예술가를 자유롭게 양성해야 하는데 단원으로 분류하는 인력, 그에 수반된 예산까지 통제를 받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 고민이 앞으로 더 가중될 거 같습니다.

정 재 승 : 여기 계신 분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방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고 회 경 : 예산구조만 보면 사업 활성화 기준이 되는 사업비 증액이 아닌 운영비 증액으로 나오는 부분이 부정적 견해일 거 같습니다.

정 재 승 : 앞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부연설명이 보충 되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 성 규 : 당장은 괜찮은 데 앞으로 10년 후 쯤 국가보조금이 동결, 축소될 경우 운영비 증가, 사업비 감소 가속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래된 재단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정 재 승 : 종합해보면 국립극단 시즌단원의 인건비가 운영비(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어 운영비/사업비 비율이 수치적으로 불균형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 사 장 : 앞으로 사업비는 사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증액 노력을 강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또한 2018년 자체제작이 15편으로 2편 축소됐는데 문체부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된 것인지, 지금까지의 제작경험, 효율적 예산, 인력, 사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극단이 적정수준으로 계획하신건지 질의합니다.

간 사 : 후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국립극단 자체수입을 높이려면 명동예술극장의 공연이 많아야 하는데, 국립극장의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진행되므로 국립예술기관 사업 협력으로 기획대관 2편(2개월)이 내년 명동예술극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로 인한 작품 축소가 이루어졌고 사업비도 사업축소만큼 감소된 것입니다.

고 희 경 : 명동예술극장은 국립극단 자체제작공연 외 대관공연은 전혀 없습니까?

간 사 : 네, 없습니다.

이 사 장 : 이사회 입장에서 사업비 감소는 좀 우려사항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극단 기능의 축소가 아닌 국립극단의 특수한 시즌단원 운영, 국립예술기관 대관협력 등 지금까지의 부연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질문 주십시오.

고 희 경 : 2018년 '창작극 스튜디오(가제)'가 '차세대 스튜디오'에서 바뀌는 건가요?

간 사 : 네, 그렇습니다.

예술감독 :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극작가의 '작가의 방'이 있다면, '창작극 스튜디오'는 '연출의 방'입니다. '창작극 스튜디오'는 연출중심의 창작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작가의 방을 통해 희곡이 생산되듯이 연출의 작품을 생산해 내고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제인데 '창작연출스튜디오', '연출창작스튜디오'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정 재 승 : 각각의 공연장을 차별화하여 관객중심, 작가중심, 연출중심으로 특성화 하는 부분은 좋은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고 희 경 : 그런데 이렇게 공연장을 규정화하여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듭니다.

예술감독 : 가능합니다. 지난 3년은 명동예술극장과 서계동 극장간의 공연장 특성이 없었습니다. 제 임기동안 작가 중심, 연출 중심의 창작극을 활성화하여 '백장극장'은 1년 내내 창작희곡이 올라가는 극장, '판'은 연출가들이 결과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실험적인 작품을 시도할 수 있는 극장으로 특성화하여 프로그래밍하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창작극이 훨씬 강화되는 기획입니다.

정 재 승 : 극장의 성격이 규정이 되면 어쨌든 공연장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공연장 특징에 맞게 프로그래밍 하니 좋은 생각입니다.

이 사 장 : 연출가들에게 판을 만들어주는 기획인 듯합니다. 예술감독님께서 오시기 전 2018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는 꽤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정리가 이루어졌는지요?

예술감독 :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으나 저는 선택과 집중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윤철 감독님 재임기간은 근현대극 시리즈, 시즌단원제 운영, 동시대성을 위해 해외 연출가들의 교류 등을 중요 기획으로 운영하셨는데 비교적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즌단원제 운영, 근현대극 시리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속 추진해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동시대성 관련한 프로그램은 지난 예술감독 임기동안 해외교류가 잘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국내 창작진(작가·연출)과 적극 소통하여 우리시대의 이야기를 담아내 수 있는 창작극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시즌단원제'는 기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배우를 심사, 선정하여 매년 (재)계약하였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 경력에 45세 이하로 하고 시즌단원 기간은 2년 상한선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 시즌단원 20명 중 45세가 넘는 배우는 자동적으로 응시가 안되고 4명만 가능합니다. 차후 오디션 심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16명 또는 20명이 모두 바뀔 수 있고, 특별한 문제없으면 2년을 상한선으로



하여 젊은배우 양성을 목표로 세대교체 하려고 합니다.

‘근현대극 시리즈’는 지금 이 자리에 이상우 이사님 안 계시지만 이상우 이사님을 비롯 극작 연구자 3명, 작가 1명, 평론가 1명, 총 5명의 ‘근현대극 선정 자문위원회’를 두고 후보작품을 추천 받아 1년에 2작품씩 향후 6개 작품을 소개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작극 소개에 대해서는 전 예술감독님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해외신작 소개, 해외 극장과의 공동제작, 해외연출가들과의 많은 국제교류를 강화했었으나 이번에는 국내 창작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창작극 개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극장 특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희곡을 1년 내내 상시 모집, 개발하여 백장극장이 우리나라 극작가들의 메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극장 판은 연출 중심의 극장으로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극장의 정체성을 보고 관객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레퍼토리극장, 실험극장 등 말이죠... 다행히 국립극단은 극장을 3개 보유하고 있어 일반 관객의 수준 있고 품격 있는 공연은 명동예술극장, 한국 극작가의 새로운 작품을 보고 싶으면 백장극장으로, 실험적인 작품은 판으로 관객을 이끄는 등 3개의 극장의 개성을 뚜렷하게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설명이 명쾌하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본격적인 신임 예술감독님의 색깔은 2019년에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예술감독 : 아닙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창작연출스튜디오 및 창작극 2개의 작품이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거기부터 본격적인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소극장 판은 책임연출가를 선임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책임연출가가 동료·후배연출가들과 협력하여 소극장 판이 창작거점으로 활동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책임연출 도입의 성과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비상근 부예술감독으로 넣어 직제를 개정하는 (안)을 앞으로 이사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 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국립극단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내년 하반기

기부터는 새로운 국립극단의 색깔을 많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없으시면 제1호 안건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호 심의안건은 (재)국립극단 임직원보수규정 개정(안)입니다.  
안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제안사유에 대하여 회의자료 24~26쪽 ‘임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자료 설명함.

이 사 장 : 두 번째 심의안건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보고안건과 연  
결되는 부분이고 이미 29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문체부에서 승  
인받은 사항입니다. 하위직급의 3개년 순차적 기본급 인상에 따른 임  
직원 보수규정(안)을 2018년에 적용할 내용입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  
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전체 : 이의 없습니다.

이 사 장 : 그럼 제2호 안건 임직원보수규정 개정(안)을 가결하고 제30회 정기이  
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이사장 김상헌 (인)

이 사 이성열 (인)

이 사 고희경 (인)

이 사 정재승 (인)

이 사 이영열 (인)